

##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시 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장 재 흥<sup>†</sup>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중3, 고1 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 척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척도, 초기 부적응도식 단축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의 경우, 융합, 유기도식이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피해경험의 경우 복종도식이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현장 및 상담장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예방과 상담개입에 대한 유의한 자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학대경험, 청소년, 초기 부적응 도식,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

\* 본 연구는 한시언의 2015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재흥,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번지,

Tel : 02-705-8336, E-mail : jangjh@sogang.ac.kr.

## 서론

그동안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로 이슈화되었던 학교폭력은 정부와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뚜렷하게 감소하여, 2016년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 0.8%, 가해율 0.3%, 목격율 2.5%로 보고되었다(교육부, 2016). 그러나 외견상 신체폭력의 발생비율이 감소한 것과 달리 은밀하게 행해지는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은 여전하며, 특히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탐구했던 연구들(박은영, 김경신, 2014; 정종진, 2012)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우울, 불안 등의 개인특성, 학급분위기와 교사 및 또래관계 등 학교특성, 부모의 체벌과 학대 등 가정특성, 폭력적 미디어, 학교폭력정책과 같은 지역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기 학대경험이다.

아동기 학대란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거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아동기 학대경험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을 부적절한 사람으로 느끼고 타인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학대를 많이 당할수록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맺기 어렵고(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우며(심선보, 2000; 한영주, 1999; Camodeca & Goossens, 2005; Kochenderfer-Ladd, 2004),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기 학대경험은 학교장면에서의 폭력 가해 및 피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Paul과 Kelly(200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동을 신체적으로 체벌을 하거나 지나치게 화를 많이 낼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이러한 공격행동을 학습하게 되며, 그래서 또래와 갈등이 있을 때 대화나 타협보다는 폭력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장면에서 폭력과 집단따돌림에서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Macklem(2003)은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동은 타인이 자신을 배척하고 싫어한다는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어 타인을 불신하고 폭력상황에서는 무기력하고 철수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연구에서도 노충래와 이신옥(2003)은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들에서 확인되었지만, 아동기 학대경험이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주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척되진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들 간을 연결하는 변인으로 인지적 도식(cognitive schema)을 가정하고자 한다.

Kendall-Tackett(2002)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는 4가지 방식 - ① 행동에 대한 영향(약물남

용, 섭식장애 등), ② 사회적 영향(대인관계 스타일, 재학대경험 등), ③ 정서적 영향(우울, PTSD 등), ④ 인지적 영향(내적작동모델 등) - 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이 방식들 중 인지적 모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패턴 및 믿음을 의미하는 도식(schema)이 아동기 충격적 사건과 성장 후 발생하는 문제 간을 연결한다고 가정하고 있다(Beck & Freeman, 1990).

인지적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Young의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s: EMSs)이다. 인지치료자인 Young(1990)은 성격장애나 심리장애를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초기 부적응 도식을 제안하였다. 그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아동기 때 심각한 박탈, 거절, 학대, 불안정, 비난, 유기와 같은 해로운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고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사고, 감정, 행동의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McGinn, Young, & Sanderson, 1995). 이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역기능적인 것이어서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반복되는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패턴이다.

한편, Young, Klosko 및 Weishaar(2003)는 이 초기 부적응 도식을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unconditional EMS)’과 ‘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conditional EMS)’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은 매우 어린 시절에 생성되고 더 핵심이 되는 믿음으로 이후 변화가 더 어렵다. 반면 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은 무조건적 도식보다는 더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변화가 더 용이하다. Young 등(2003)은 아동기에 부모가 자녀를

냉정하고 무심하고 거부적으로 대하는 경우 자녀는 안정, 안전, 소속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는 유기(자기에게 중요한 인물이 자기보다 더 매력적 지적이고 안정된 사람을 선호해서 자신을 떠날 것이란 믿음), 불신(타인이 자신을 학대, 모욕, 속이고, 조정할 것이라는 확신), 정서적 결핍(타인이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결합/수치심(기본적으로 자신은 결합이 많고 나쁘고 열등하다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도식들은 유약한 어린 시절 외상사건을 피할 방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경험하면서 자기/타인에 대해 부정적 관점이 생성된 것이기에 ‘무조건적’이다.

반면 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은 아동이 예상되는 부정적 사건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그 내용면에서 조건적이다. 예를 들어 복종(타인의 보복과 거절이 두려워 자기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하는 것), 자기희생(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과도하게 죄책감을 갖는 것), 정서적 억제(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신의 느낌을 과하게 억제하거나 타인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과도하게 피하려는 행동), 엄격한 기준(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등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조건적인 도식들이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은 아동기 학대와 같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외상들이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들의 생성과 관련이 높다는 Young 등(2003)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arr와 Francis

(2010)의 연구에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불신도식과 관련이 있었고, 정서적 방임은 정서적 결핍, 사회적 고립, 결합/수치심도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right, Crawford, 및 DelCastillo(2009)의 연구에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위협/질병에 대한 취약성, 자기희생, 결합/수치심도식과 관련이 있었고, 정서적 방임은 위협/질병에 대한 취약성, 결합/수치심도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Cccero, Nelson, 및 Gillie(2004)의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는 불신, 정서적 결핍, 결합/수치심도식과 관련이 있었고, 정서적 방임은 정서적 결핍, 결합/수치심도식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Young 등(2003)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상술한 결과들은 주로 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결과로, 국내 청소년들에게 함의가 있기 위해서는 국내 청소년 대상의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파트너 폭력 및 학교폭력과 같은 폭력행동과 초기 부적응 도식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Tremblay와 Dozois(200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성적 공격성(trait aggressiveness)과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불신, 특권 의식, 부족한 자기통제도식이 특성적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tmaca와 Gencoz(2016)는 아동기 학대와 파트너에 의한 폭력피해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정서적 결핍과 위협/질병에 대한 취약성도식이 이들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Crawford와 Wright(2007)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친밀한 이성 파트너에 대한 폭력경험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불신, 자기희생, 정서적 억제도식이 아동기 학대와 파트너 폭력피해 간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신, 특권 의식, 정서적 억제, 부족한 자기통제도식이 아동기 학대와 파트너 폭력피해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아동기 학대경험이 이후 폭력피해 혹은 피해로 나타날지를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소수의 연구들이 있었다. 노영천과 김홍석(2014)은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아동기 학대경험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초기 부적응 도식 전체점수의 매개효과를 본 것으로 개별 도식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박진아(2015)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및 방관행동의 경우 손상된 한계(impaired limits) 영역이,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손상된 자율성(impaired autonomy) 영역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영역들은 도식들의 상위 범주들(Young, 1990)로, 개별도식의 역할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상술한 이전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피해,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어떤 도식들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 학교폭력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개입과 상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 학교폭력 경험 간에는 유의한 관계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초기 부적응 도식 중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식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초기 부적응 도식은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3개교, 특성화 고등학교 2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중3, 고1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2014년 11월 하순부터 4주간 직접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문지를 실시하거나 해당 학교의 담당교사를 통해 설문을 의뢰, 회수하였다. 총 52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8부를 제외하고 총 502부를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자는 247명(49.2%), 여자는 255명(50.8%)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3 235명(46.8%), 고1 267명(53.2%)이었다.

### 측정도구

###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학교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은영(2014)이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준우(2010), 김규학(2013)이 사용한 척도에서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집단 따돌림 각각 3문항을, 괴롭힘과 금품갈취에서 2문항을 발췌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동일한 문항내용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물었다. 일례로 학교폭력 가해경험 문항은 ‘내가 다른 학생을 물건(책자, 가방, 빗자루 등)으로 때린 경험’, ‘내가 다른 학생에게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고 00놈(년), 00새끼 등의 심한 욕을 한 경험’ 등이다. 피해경험은 가해경험과 똑같은 문항을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어 피해경험을 구성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1점), 일 년에 1~2번(2점), 한 달에 1~2번(3점), 일주일에 1~2번(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박은영(2004)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 피해경험은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76,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80으로 나타났다.

### 아동기 학대경험

아동기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량(2005)이 활용한 아동기 학대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학대 7문항, 정서적 학대 7문항, 방임 8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신체적 학대문항은 김현수(1997)가 Straus(1981)의 ‘갈등관리척도(CTS; Conflict Tactics Scale)’ 중 폭력척도를 번안한 것이며, 정서적 학대는 고성혜(1992)가 제작하고 김세

원(2000)이 참조하여 만든 문항을, 방임은 김현수(1997)와 최윤라(1998)의 연구를 참조하여 만든 문항들을 사용한 것이다. 아동기 학대경험 문항의 예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혹은 나를 양육해 주신 분)이 ‘손으로 나의 팔, 다리, 머리, 뺨 등을 때렸다’, ‘나에게 나가 죽어라라고 말을 하였다’, ‘내가 아플 때 신경을 써 주시지 않았다’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1점), 1년에 1~2번(2점), 3~5번(3점), 6~10번(4점), 11번~20번(5점), 20번 이상(6점)의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대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의 전체점수만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장량(2005)의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경험의 신뢰도는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 Cronbach's  $\alpha$  .80, 정서적 학대 .86, 방임 .67, 전체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 초기 부적응 도식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8)이 개발한 YSQ-SF(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를 이미엘(2006)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Young(1990)은 초기 부적응 도식을 평가하기 위해 YSQ-LF(Young Schema Questionnaire Long Form)를 개발하였는데, 총 20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개의 초기 부작용 도식을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조성호(2001)가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경험적으로 이 도식들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Young이 제안한 16개의 부적응 도식 중 15개가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Young(1998)은 YSQ-LF의 문항 수를 줄인 75문항의 YSQ-Short Form을 개발하였다(Young, 1998). 이 질문지는 15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

을 평가하는데,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기도 하였다(Baranoff, Oei, Cho, & Kwon, 2006). 15개 초기 부적응 도식은 정서적 결핍(emotional deprivation), 유기(abandonment), 불신(mistrust),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결함/수치심(defectiveness/shame), 실패(failure), 의존/무능감(dependence/incompetence), 위협/질병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융합/미발달된 자기(enmeshment/undeveloped self), 복종(subjugation), 자기희생(self-sacrifice), 정서적 억제(emotional inhibition), 엄격한 기준(unrelenting standards), 특권의식(entitlement), 부족한 자기통제(insufficient self-control)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꽤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꽤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의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는 도식의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생을 연구했던 Baranoff 등(2006)의 연구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신뢰도는 .72-.90의 범위였고,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하위도식의 신뢰도는 .82-.95의 범위였고,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8로 나타났다.

###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어떤 초기 부적응 도식이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이용,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이하(Hu & Bentler, 1999) 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비표준화된 계수와 표준오차 수치를 투입하는 Sobel검증 방식을 사용하였다. Sobel 검증 결과 그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 결 과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상관관계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 폭력행동을 예측했던 기존연구(Crawford, & Wright, 2007)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기초분석에서 15개 도식들 간에 상호상관이 .70이상으로 높았던 4개 도식(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 의존/무능력,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에 대한 개별 도식들의 예측력, 그리고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 간의 관계를 어떤 개별 도식들이 매개하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도식들 간의 상호상관이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Stevens, 2002).

상관분석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 $r=.210\sim.362$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높은 상관을 보였던 초기 부적응 도식은 정서적 결핍( $r=.362$ ), 불신( $r=.359$ ), 융합( $r=.333$ ), 유기( $r=.301$ ) 순이었다. 또한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경험( $r=.315, p<.01$ ), 피해경험( $r=.301, p<.01$ )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 가해측면에서는 융합( $r=.297$ ), 유기( $r=.259$ ), 불신( $r=.247$ ), 복종도식( $r=.244$ ) 순으로 학교폭력 가해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복종( $r=.306$ ), 불신( $r=.275$ ), 융합( $r=.271$ ), 유기도식( $r=.258$ ) 순으로 학교폭력 피해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관계에서, Young 등(2003)이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이라 언급했던 정서적 결핍, 불신, 유기도식이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계수(N=502)

	학교폭력			아동기 학대			초기 부적응 도식										
	1. 가해 경험	2. 피해 경험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방임	6. 아동기 학대총점	7. 정서적 결핍	8. 유기	9. 불신	10. 실패	11. 융합	12. 복종	13. 자기 희생	14. 정서적 억제	15. 엄격한 기준	16. 특권 의식	17. 부족한 자기통제
1	1																
2	.447**	1															
3	.311**	.277**	1														
4	.288**	.277**	.710**	1													
5	.121**	.131**	.161**	.194**	1												
6	.315**	.301**	.810**	.840**	.615**	1											
7	.157**	.237**	.271**	.302**	.245**	.362**	1										
8	.259**	.258**	.204**	.244**	.229**	.301**	.567**	1									
9	.247**	.275**	.223**	.353**	.230**	.359**	.540**	.664**	1								
10	.168**	.210**	.132**	.216**	.198**	.244**	.505**	.496**	.528**	1							
11	.297**	.271**	.210**	.325**	.212**	.333**	.526**	.523**	.564**	.568**	1						
12	.244**	.306**	.181**	.253**	.222**	.295**	.583**	.592**	.603**	.669**	.689**	1					
13	.138**	.134**	.169**	.165**	.142**	.210**	.275**	.350**	.333**	.285**	.306**	.384**	1				
14	.154**	.218**	.163**	.210**	.187**	.249**	.479**	.509**	.581**	.530**	.528**	.624**	.558**	1			
15	.180**	.112**	.167**	.198**	.125**	.217**	.277**	.383**	.388**	.229**	.349**	.372**	.607**	.576**	1		
16	.148**	.192**	.140**	.185**	.147**	.210**	.419**	.471**	.460**	.349**	.446**	.434**	.574**	.658**	.655**	1	
17	.215**	.219**	.109*	.169**	.191**	.210**	.447**	.464**	.467**	.515**	.482**	.591**	.484**	.595**	.530**	.612**	1
M	14.15	12.90	8.25	8.26	10.05	25.57	7.45	9.00	8.70	9.66	7.15	8.14	11.59	9.16	11.63	9.48	10.16
SD	3.70	3.29	3.01	3.39	3.38	7.37	4.50	5.74	5.52	6.09	3.98	4.81	5.32	5.38	6.18	5.25	5.71

\*\*p<.01. \*p<.05.

다른 도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초기 부적응 도식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간의 관계에서, 융합, 유기, 불신, 복종도식이 다른 도식들에 비해 학교폭력과 상관이 높았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에 어떤 초기 부적응 도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를 잘 예측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탐색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이 있어 변인의 투입방식으로 stepwise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 중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융합, 유기도식이었다. 그리고 이들 도식은 학교폭력 가해경험 변량의 10.3%( $F=28.438, p<.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 유기도식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복종과 불신도식이었다. 이들 2개 도식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변량의 11%( $F=29.61, p<.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종, 불신도식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중다회귀분석에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도식들이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간을 유의하게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구성은 기존연구와 앞서 나타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는데, 아동기 학대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도식들을 매개변인으로, 학교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이었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모형을 살펴보면, 가해경험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32.491(df=6, p<.001)$ , TLI .905, CFI .962, RMSEA .094로 편

표 2.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	R <sup>2</sup>	F
가해경험	(상수)	11.88	.34		34.53***		
	융합	.21	.05	.22	4.45***	.103	28.438***
	유기	.09	.03	.14	2.88**		
피해경험	(상수)	10.94	.29		37.55***		
	복종	.15	.04	.22	4.15***	.11	29.61***
	불신	.09	.03	.14	2.67**		

\*\*\* $p<.001$ . \*\* $p<.01$ . \*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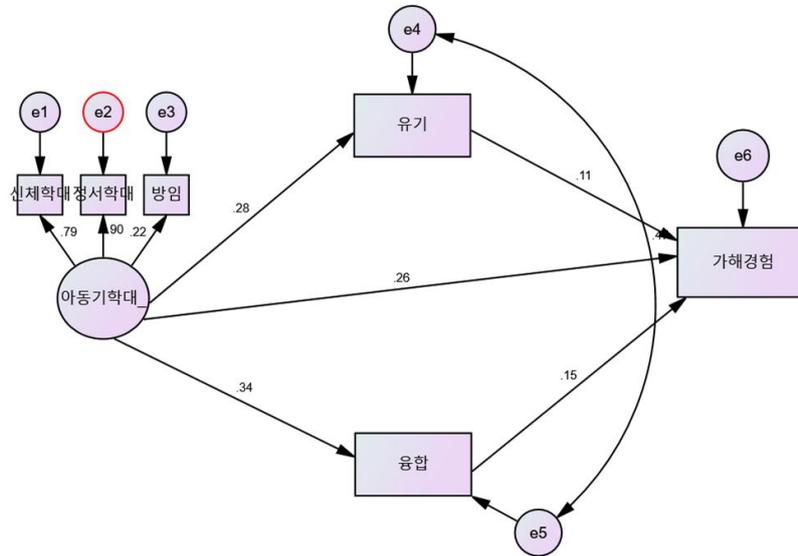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가해경험 모형의 경로도

낮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기 학대는 유기, 융합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기, 융합은 가해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는 가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유

기( $\beta=.28, p<.001$ ), 융합( $\beta=.34, p<.001$ )이 증가하며, 유기( $\beta=.11, p<.05$ ), 융합( $\beta=.15, p<.01$ )이 클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 학대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beta=.26, p<.001$ ) 또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설정된 각 경로에 대해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평균모

표 3. 학교폭력 가해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기학대 → 유기	.28***		
아동기학대 → 융합	.34***		
유기 → 가해경험	.11*		
융합 → 가해경험	.15**		
아동기학대 → 유기 → 가해경험		.03**	
아동기학대 → 융합 → 가해경험		.05**	
아동기학대 → 가해경험	.26***	.08**	.34***

\*\*\* $p<.001$ . \*\* $p<.01$ . \* $p<.05$ .

수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경로모형에서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유의 경로에 대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해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표 3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기학대→유기→가해경험의 경로에서, 아동기학대가 유기도식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유기도식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아동기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였다(Sobel's  $z=2.60, p<.01$ ). 그리고 아동기학대→융합→가해경험 경로에서 아동기학대가 융합도식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융합도식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아동기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도식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였다(Sobel's  $z=3.34, p<.01$ ).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유기, 융합도식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의 관

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chi^2=29.05(df=6, p<.001)$ , RMSEA .088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며 TLI .924, CFI .970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기 학대는 복종( $\beta=.27, p<.001$ ), 불신( $\beta=.37, p<.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복종( $\beta=.20, p<.001$ )은 학교폭력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고 있었지만, 불신( $\beta=.07, n.s.$ )은 학교폭력 피해에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23, p<.001$ )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된 각 경로에 대해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평균모수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불신→피해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피해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표 4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기학대→복종→피해경험의 경로에서, 아동기학대가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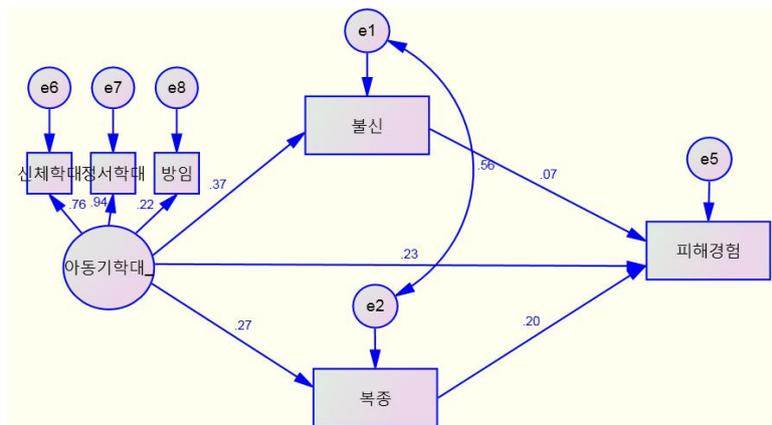


그림 2. 학교폭력 피해경험 모형의 경로도

표 4. 학교폭력 피해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기학대 → 복종	.27***		
아동기학대 → 불신	.37***		
복종 → 피해경험	.20***		
불신 → 피해경험	.07		
아동기학대 → 복종 → 피해경험		.02	
아동기학대 → 불신 → 피해경험		.05**	
아동기학대 → 피해경험	.23***	.05**	.28***

\*\*\* $p < .001$  \*\* $p < .01$ . \* $p < .05$ .

중도식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복종도식이 피해 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아동기학대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복종도식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였다(Sobel's  $z=2.89$ ,  $p < .01$ ). 그리고 아동기학대→복종→피해경험 경로에서 아동기 학대가 복종도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지만, 복종도식이 피해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아동기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종도식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obel's  $z=1.64$ , *n.s.*).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 간에서 복종도식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기 외상과 학대경험으로 인하여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달하며, 아동기 학대경험이 초기 부적응 도식 발생의 유발인자가 된다는 연구결과(Crawford & Wright, 2007; Messman-More & Coates, 2007; Young et al., 2003)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와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도식은 정서적 결핍, 불신, 융합, 유기도식이었는데, 이것은 Young 등(2003)이 어린 시절 외상에 의해 생성되는 무조건적 도식이 유기, 불신, 정서적 결핍, 결합/수치심도식이라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융합, 유기, 불신도식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와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도식들은 학교폭력의 가해/피해와 관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피해경험 모두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아동기 학대경험과 다양한 문제들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영혜, 2009; 차미영, 2010; Crawford & Wright, 2007; Messman-More & Coates, 2007), 그리고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이 부분 매개한다는 박진아(20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였다. 한편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아동기 학대경험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특정역할을 하지만, 아동기 외상이 직접적으로 혹은 연구가 설정하지 않은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아동기 학대경험 →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의 직접적 경로의 효과크기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하는 경로의 효과크기보다 컸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을 매개하는 또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셋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을 매개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매개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은 유기, 융합도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학대를 많이 당할수록 중요한 타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자기를 떠나버리고 버릴 것 같다고 느끼게 되고(유기), 타인들과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자기가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융합)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기와 융합도식의 의미를 밝힌 참고할만한 기존연구가 없어 결과의 의미를 명확

하게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연구자가 유기 및 융합도식과 학교폭력 가해 개별 문항간의 상관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유기도식의 경우 ‘어떤 학생과 놀지 말라고 시킨 적이 있다’, ‘어떤 학생을 일부러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다’와 같이 자신이 다른 학생을 유기(혹은 소외)시키는 문항들과 가장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융합도식은 ‘다른 학생의 외모나 장애를 보고 조롱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다른 학생에게 채수없다, 짜증난다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문항과 가장 상관이 높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여럿이서 한 구성원을 함께 비난하거나 왕따 시킬 때 나타나기 쉬운 행동들이었다.

한편, 기존연구에 따르면 유기도식은 적개심(Tremblay & Dozois, 2009)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타인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유기도식이 높을 경우 약간의 유기 징후에도 과도한 공격으로 반응하는 행동(Young et al., 2003)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술한 가해문항과의 상관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유기도식이 높을 경우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유기 당할 수 있다는 징후에 민감할 수 있으며, 자신이 부모에게 유기 당했듯이 다른 학생을 유기하는 공격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아울러 융합도식은 스스로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중요한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밀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자기에 대한 개념이 미흡하다는 박경숙, 손희권, 및 송혜정(1998)의 연구결과,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또래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또래집단의 가해행동에 동참하는 현상(정향기, 최태진, 2013)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상술한 문항과의 상관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융합도식이

높을 경우 자기 생각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또래들의 행동에 함께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매개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은 복종도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학대를 많이 당할수록 보복, 유기,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지나치게 내어주고 굴복하거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복종)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연구자가 복종도식과 폭력피해 개별 문항간의 상관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복종도식은 또래 학생들이 자신을 ‘물건으로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거나, 재수없다고 하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피해문항들과 상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기 의견을 가치 없게 느끼고 타인의 기분을 무조건 맞추려고 하며 거절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정향기, 최태진,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거의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나 태연한 척 하거나 혹은 무기력한 행동적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Schwartz, Dodge, & Coie, 1993)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학대와 데이트 폭력 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역할을 연구했던 Crawford와 Wright(200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폭력 가해의 경우 불신, 특권의식, 정서적 억제, 불충분한 자기통제도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의 경우 불신, 자기희생, 정서적 억제 도식이 매개요인이라고 밝혔

다. 이러한 차이는 Crawford와 Wright(2007)가 성인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살펴본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연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대일의 관계인 성인의 데이트 폭력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적 장면인 학교에서의 폭력 가해, 피해경험을 연구했기 때문에 유기나 융합, 복종과 같은 도식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 또한 가정에서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이며,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해 유기, 융합도식을 가지게 되어 이것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자기를 주장하기 보다는 타인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이들을 상담하는 데서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개입하는 것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자들을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 측면보다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동기 학대로 인한 상실감을 또래 안에서의 결속력으로 충족하고,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또한 가정에서 공격자에게 복종하던 방식이 학교장면에서 동일하게 또래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에 대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눈으로 보이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 부적응적 태도와 행동의 문제를 가져오는 기원을 이해하고 도식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5개 초기 부적응 도식 중 4개(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 의존/무능력, 위협/질병에 대한 취약성)를 제외하여 이 도식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특정 도식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둘째, 불신도식은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불신→학교폭력 피해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불신도식은 기존연구들(Atmaca & Gencoz, 2016; Crawford & Wright, 2007)에서 특히 폭력피해 행동을 잘 예측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추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응답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참여자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족, 친구, 교사나 부모의 관점을 포함시키거나 면접 관찰법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의 문제가 유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만한 시·공간적 경험, 기질, 성격적 특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기 이후의 외상과 같은 경험, 기질이나 성격적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광혁 (2009).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사회과학논집*, 24(2), 27-45.
- 김영혜 (2009).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 갈등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77-100.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10, 235-236.
- 교육부 (2016).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503&opType=N&boardSeq=65052>
- 노영천, 김홍석 (2013). 아동의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1-20.
- 노충래, 이신옥 (2003).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내적 통

- 제감 및 학교생활 인식을 중심으로. 학교 사회사업학회지, 1(6), 1-35.
-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학생의 왕따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98-119.
- 박은영 (2014).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영, 김경신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91-118.
- 박진아 (2015). 청소년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 :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가족치료연구, 14, 65-80.
- 배준우 (2010).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선보 (2000).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 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4, 9-42.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량 (2005). 아동기 학대경험이 청소년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익중 (2008). 아동학대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 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8(3), 223-244.
- 정종진 (2012). 생태학적 측면에서 본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 초등상담연구, 11(3), 331-350.
- 정향기, 최태진 (2013). 중학교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 상담학연구, 14(1), 573-591.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성호 (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75-788.
- 차미영(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정 (2009). 아동기 학대경험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주 (1999).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1), 167-177.
- 한국교육개발원(2104). 2014 학교폭력실태조사. 서울.
- Atmaca, S., & Gencoz, T. (2016). Exploring

- revictimization process among Turkish women: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on the link between child abuse and partner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52, 85-93.
- Baranoff, J., Oei, T. P. S., Cho, S. H., & Kwon, S. M. (2006). Factor structur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in Korean and Australian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 133-140.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ies*. New York: Guilford Press.
- Camodeca, M., & Goossens, F. A.(2005). Aggression, social cognitions, anger and sadness in bullies and victi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46, 186 - 197.
- Carr, S. N., & Francis, A. J. P. (2010). Do early maladaptive schema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xperienc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a non-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 343-358.
- Cecero, J. J., Nelson, J. D., Gillie, J. M. (2004). Tools and tenets of schema therapy: Towar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early maladaptive schema questionnaire-research version (EMSQ-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1, 344-357.
- Crawford, E., & Wright, M. O.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n interpersonal schemas and subsequent experiences of relationship aggression. *Journal of Emotional Abuse*, 7, 93-116.
- Kendall-Tackett, K. (2002). The health effects of childhood abuse: Four pathways by which abuse can influence health. *Child abuse & Neglect*, 26(6), 715-729.
- Kochenderfer-Ladd, B. (2004). Peer victimization: The role of emotions in adaptive and maladaptive coping. *Social Development*, 13, 329 - 349.
- Macklem, G. L. (2003). *Bullying and teasing : Social power in children's groups*. New York :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
- McGinn, L. K., Young, J. E., & Sanderson, W. C. (1995). When and how to do longer term therapy, without feeling guilty?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 187-212.
- Messman-Moore, T. L., & Coates, A.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7, 75-92.
- Muris, P. (2006). Maladaptive schemas in non-clinical adolescents: Relations to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sychological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 405-413.
- Paul R. S., & Kelly H. K. (2005). Bullying in school: An overview of types, effec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hildren Schools*, 27(2), 101-110.
- Schwartz,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tevens, J. P. (200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4th ad.)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remblay, P. E., & Dozois, D. (2009). Another perspective on trait aggressiveness: Overlap with early maladaptive schema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5), 569-574.
- Wright, M. O., Crawford, E., & DelCastillo, 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33*, 59-68.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E. (1998).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New York: Cognitive Therapy Center.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17. 02.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4. 13.  
최종게재결정일 : 2017. 04. 15.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offense experi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Sieon Han**

**Jaehong Jang**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offense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The participants were 502 9<sup>th</sup>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freshman in Gyeonggi-do, who filled out the Questionnaires with child abuse scale, School violence experienced scale, Early maladaptive schemas - short form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there were a significant static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childhood abuse,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school violence offense/victimization experience. Second, the early maladaptive schema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experiences. In school violence offense, a enmeshment and abandonment schema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 subjugation schema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This research results can help ourselves to understand perpetrators/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it may suggest informative resources in school fields and counseling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For the last, based on the represented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Abuse, Early Maladaptive Schemas, Adolescents, School Violence Offense Experienc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